종교와 과학 그리고 종교학:

관계유형의 다양성과 종교학의 역할

안 신*

I. 서론: 왜 종교와 과학인가?
II. 종교와 과학의 관계 유형의 다양성:
바버와 맥그래스의 모델
III. 종교와 과학에 대한 인식론적 반성:
월터스터프와 호이스틴의 모델
IV. 결론: 종교와 과학 사이에 종교학의 역할

I. 서론

20세기가 냉전에 기초한 '이데올로기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21세기는 무한한 세계화를 지향하는 '다종교의 시대'가 될 것이다. 산업혁명과 우주의 재발견으로 종교의 종말이 도래하는 듯했지만, 인류의 역사는 오히려 그 반대로 진행되어 왔다. 급속도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인구의 무려 85%에 이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종교적 믿음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 "과학과 종교는 실재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두 가지 상이해 보이는 세계관은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상호 보완적인 것인가?" 주술에서 종교를 거쳐 과학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1세기 전 합리주의자들의 예언들은 현대 종교의 왕성한 활동과 성장으로 미루어 볼 때 빗나간 듯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종교가 과학의 논리를 지나치게 이용하여 생존하려고 발버둥 칠 정도로 현대사회에서 과학의 영향력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일종의 종교처럼 대단한 통제력과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그들의 예언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는 조심스러운 평가를 내리게 한다. 세계종교로 부상해 온 기독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는 자신들의

* 배재대학교 종교학 교수, shinahn@pcu.ac.kr

교리가 지닌 과학적 우수성을 포교의 과정에서 입증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1)]

이 점에서 종교학자는 종교와 과학이라는 전혀 다른 두 세계를 넘나드는 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헤르메스와 같은 존재이다. 물론 다양한 종교전통들을 이해하는 작업도 난해한 일이지만, 과학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종교의 역동성과 진화를 이해하는 일도 중요하다.[2)] 간혹 직업을 묻는 사람들은 "종교를 연구한다."는 필자의 대답에 당혹해 하곤 한다. 흔히 사회에서 '미신'으로 치부되어지는 '종교'를 연구한다는데 놀라거나 아니면 종교학자는 의례 '종교적'일 것이라는 가정을 하곤 한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종교학자는 종교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하고, 인간의 종교문화를 연구한다고 하거나 종교에 대한 과학적 혹은 철학적 탐색을 한다고 풀어 말해도 여전히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인다. 종교학은 기독교연구, 이슬람연구, 불교연구, 힌두교연구 등의 전통별 종교연구의 영역과 함께 종교현상학, 종교심리학, 종교인류학, 종교사회학, 종교철학, 비교종교학 등의 다양한 종교연구의 방법론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연구영역이 거대한 만큼 연구자 간의 협력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종교학을 영어로 'religious studies', 'the study of religion', 'history of religions' 등으로 표기하지만, 'the science of religion' 혹은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이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되고 있다.[3)] 이러한 일련의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종교학은 종교와 과학을 아우르는 학문영역임이 분명하며, 종교학의 역할과 범주에 대한 논쟁이 근대 종교학이 태동한 이후로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한편으론 당연한 일로 보인다.

---

1) 예를 들어, 이슬람의 경우, I. A. Ibrahim, *A Brief Illustrated Guide to Understanding Islam*, 곽은미 역, 『이슬람의 이해를 돕는 간단한 삽화 안내서』(아담출판사, 2007), pp. 9-31. 이 저서는 꾸란의 계시가, 인간 태아의 발생 단계, 대륙지각의 형태, 우주의 기원, 대뇌의 구조, 민물과 해수의 구분, 심해와 바다 속의 파도, 구름의 형성 등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불교의 경우, 조계종 포교원, 『포교이해론』, 조계종출판사, 2007, pp. 27-28. 과학기술의 발달이 불교의 포교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 Linda Woodhead, ed. *Religions in the Modern World* (London: Routledge, 2002), p. 7. 힌두교와 불교는 과학과 교리의 조화로운 양립 가능성을 주장해 왔다.

3) Max Muller,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Religion* (London: Longmans, Green, and Co., 1882), pp. 1-51. 뮐러는 비교언어학에서 사용하는 비교의 원리를 수용하며 종교학을 "세계종교에 대한 과학적 연구" 혹은 "종교들에 대한 비교연구"로 간주하였는데, 크게 종교학을 비교신학과 이론신학으로 구분하였다. Ernest S. Frerichs and Jacob Neusner, *Goodenough on the History of Religions and on Judaism* (Atlanta: Scholars Press, 1986), pp. 3-17. 굳이너프는 1964년의 'Religionswissenschaft'라는 논문에서 종교학을 자료의 분석을 통한 종교연구로 간주하지만, 과학 자체를 "새로운 종교"(a new religion)로 볼 수 있다는 독특한 입장을 취하였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종교와 과학의 관계를 영미의 과학자, 신학자, 철학자가 제시한 대표적 유형론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관계 속에서 종교학이 지니는 의미와 역할의 다양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종교와 과학의 세부적인 분야에 대한 탐색보다는 일반적 차원의 종교담론에 대한 검토에 머물 것이며, 종교와 과학의 관계에 대한 통시적 접근보다는 공시적 접근을 더 활용할 것이다. 영국의 성공회 신학자 맥그래스(Alister E. McGrath, 1953-)는 "과학적 신학"(scientific theology)의 가능성을 지적하며 자연과학과 신학의 창조적 대화를 시도한 바 있다.[4] 그러나 필자가 여기서 사용하는 과학의 개념은 자연과학(natural sciences)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지식의 모둠, 연구의 영역, 학문의 접근방식 등을 포함하는 독일어 '과학'(Wissenschaft)의 포괄적 개념까지 고려한 것이다.

II. 종교와 과학의 관계에 대한 유형의 다양성: 바버와 맥그래스의 모델

2002년 영국에서 <국제 과학과 종교 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Science & Religion)가 창립되었다. 다양한 과학의 분야들과 세계종교들의 학제간 연구와 대화를 학문적인 차원으로 더욱 심화시키고 진작시키기 위하여 영미학자가 중심이 되어 만든 학회이지만, 이상하게도 이 학회에 참여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기독교 전통과 관련이 있었다. 캠브리지에서 2009년에 열렸던 학회에서는 "진화와 종교 그리고 고통"의 주제가 다루어졌고, 올해 옥스퍼드에서 개최된 정기 모임에서는 "신과 물리학"의 주제가 논의되었다.[5] 이처럼 최근 서양의 기독교 학계에서는 과학과 종교의 소통을 위한 학문적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의 가톨릭 신학자 호트(John Haught)도 종교와 과학을 서로 다르지만 상호 보완적인 자연을 읽는 '독법'으로 보았고,[6] 미국의 개신교 신학자 반 호이스틴(J.

---

4) Alister E. McGrath, *The Science of God: An Introduction to Scientific Theology* (London: T & T Clark, 2004), pp. 1-15. 맥그래스는 '과학적 신학'을 구축하게 된 자신의 학문적 배경을 일종의 전기형태로 기록하고 있다. 무신론자에서 기독교인으로 회심을 하게 된 그는 옥스퍼드대 출신의 생화학 박사이면서도 종교경험에 기초한 과학적 학문화의 길을 선택하고 걷고 있다.

5) 국제 과학과 종교 학회 홈 페이지를 참조하라. http://www.issr.org.uk/index.asp (접근일: 2010년 5월 6일)

6) John Haught, *Deeper than Darwin*, 김윤성 역, 『다윈 안의 신』(지식의 숲, 2005), pp. 47-72.

Wentzel van Huyssteen) 역시 후기기초주의(post-foundationalism)를 토대로 하여 과학과 종교의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7)]

종교학자 바버(Ian Barbour, 1923-)는 종교와 과학의 담론에서 구체적인 관계 모델에 관한 네 가지 유형론을 제시하였고[8)], 신학자 맥그래스는 기독교의 맥락에서 바버의 유형론을 적용하여 발전시켰다.

먼저 미국학자 바버는 시카고대학에서 물리학 박사를 마치고 예일대학에서 신학과 윤리를 연구한 후 1960년대 종교와 과학의 학제 간 연구와 논쟁에 불을 지폈던 인물이다.[9)] 그는 중국 옌칭대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미국 감독교인 모친과 스코틀랜드 장로교인 부친 사이에서 태어나, 영국의 퀘이커학교에서 수학하고, 미국으로 이주하여 성장하였다.[10)] 그는 미네소타의 칼레톤대학(Carleton College)에서 물리학과 종교를 가르쳤고, 1989년과 1991년에 각각 영국의 기포드 강연에 초대되어 아버딘대학에서 강의하였고 그 강연의 결과가 『과학시대의 종교』(1990)와 『기술시대의 윤리』(1993)로 각각 출판되면서 명실상부 종교와 과학 분야의 세계적인 학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11)] 이후 1999년 템플턴상을 수상하고 그 상금을 버클리에 있는 <신학과 자연과학 연구소>(Center for Theology and the Natural Sciences)에 기증함으로써 신학자들과 과학자들의 대화와 학제 간 연구의 장을 마련하였다.

바버에 따르면, 종교와 과학 사이의 관계는 크게 ① 충돌과 ② 독립 및 ③ 대화와 ④ 통합의 네 가지 유형들로 구분된다.[12)] 첫째, 충돌(conflict)의 유형은 성서적 문자주의자들과 과학적 무신론자들 사이의 관계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이다. 전자는 진화론이 종교적 신앙과 충돌한다고 믿고, 후자는 진화론의 과학적 증거가 어떤 형태의 유신론과도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는 상반된 두 세력은 서로를 적들(enemies)로 인식하며 논쟁을 일으키기 때문

---

7) J. Wentzel van Huyssteen, *Duet or Duel?: Theology and Science in a Postmodern World* (London: SCM, 1998), pp. 22-33.

8) Michael Peterson et al., *Reason and Religious Belief*, 3rd ed. (2003), 하종호 역, 『종교의 철학적 의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pp. 377-402. 네 가지 유형 중에 최근의 관심은 갈등과 독립의 모델에서 대화와 통합의 모델로 전이되고 있다.

9) 칼레톤대의 홈 페이지(http://www.carleton.edu/campus/newsbureau/pr/barbour.html)를 참조하라. (접근일: 2010년 5월 16일)

10) 미국공영방송 홈페이지(http://www.pbs.org/newshour/forum/june99/barbour_bio.html)를 참조하라. (접근일: 2010년 5월 10일)

11) 기포드강좌 홈 페이지(http://www.giffordlectures.org/Author.asp?AuthorID=207)를 참조하라. (접근일: 2010년 5월 12일)

12) Ian Barbour, *When Science Meets Religion* (London: SPCK, 2000), pp. 2-4.

에, 결국 위에 언급되었던 호트와 호이스틴과 같이 진화론과 유신론을 모두 수용하는 중도적인 사람들과 견주어 볼 때, 미디어의 흥미로운 주제로 되기가 더 쉬우며 많은 사회의 주목을 끌게 되어 극단적인 분류의 사람들로 간주되어 진다.

둘째, 독립(independence)의 유형은 종교와 과학이 삶의 다른 영역 혹은 실재의 다른 측면을 의미한다는 전제에 기초한다. 두 가지 다른 언어로서 인간 삶에 다른 기능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영역에 있으므로 상호 충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과학은 객관적인 사실을, 종교는 가치와 궁극적인 의미를 다룬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점을 제공해 준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서로의 범주를 넘어설 때 충돌과 대립과 같은 문제가 야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서로의 창조적 결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삶의 실재를 양분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서로의 독자적인 영역이 있으니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관계라고 보게 되는 것이다.

셋째, 대화(dialogue)의 유형은 종교와 과학의 방법과 영역 사이에 유사점을 강조하는 비교연구에서 주로 등장한다. 양자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신과 전자를 상상하기 위하여 종교와 과학 둘 다 개념과 유비를 사용할 수 있다. 혹은 종교와 과학이 각각 충분한 해답을 찾지 못하는 우주론에 대한 한계상황에서 상호 인식을 돕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때로는 과학의 개념으로 종교를 설명할 수도 있다. 따라서 종교와 과학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주면서 비판적 성찰에 참여하여 서로의 설명과 지혜를 나누는 창조적인 작업을 진행해 나간다.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대화의 노력은 인간 문명과 문화의 진보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

넷째, 통합(integration)의 유형에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철학적 탐구처럼 서로 긴밀하게 종교와 과학의 방법들이 체계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과정철학과 자연신학은 과학의 개념과 종교의 사상을 동일한 개념의 틀 안에서 사용한다. 전통적인 자연신학(natural theology)은 우주와 자연에서 신의 존재를 추론해 가지만, 현대의 자연의 신학(theology of nature)은 "과학의 내용을 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신학 교리들을 교육하고 재구성하며 재해석하는 데에 사용한다."[13] 예를 들어, 영국 에딘버러대학의 조직신학자 퍼거슨(David Fergusson)은 빅뱅이론과 진화론을 창조적으로 결합시켜 창조의 신학(theology of creation)을 전개하였다.[14] 이와 같이 종교와 과

13) Peterson et al., *Reason and Religious Belief*, p. 399.

14) David Fergusson, *The Cosmos and the Creator: An Introduction to the Theology of Creation* (London: SPCK, 1998), pp. 39-45, 56-61.

학의 다양한 관계모델을 제시하는 가운데 바버는 대화와 통합의 유형을 지지하면서도, 현대사회에서는 충돌과 독립의 경향이 더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러한 네 가지 유형론에 기초하여, 그는 천문학, 물리학, 진화론, 유전학, 신경학, 신학 등의 세부 분야들을 심화시켜 설명하였다.

비슷한 학문적 여정을 영국학자 맥그래스도 거쳤다. 그는 옥스퍼드대학에서 생화학 박사를 마치고 캠브리지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에 성공회목사로 안수를 받고 대표적인 복음주의자 학자로서 활동하며 종교와 과학의 학제 간 연구를 진행해 왔다. 최근 옥스퍼드대학에서 런던대학으로 이동하면서 옥스퍼드의 생물학자 도킨스(Richard Dawkins)가 주창하는 "새로운 무신론"(new atheism)과의 신학적 대결을 주도하고 있다.[15] 현대 무신론운동의 투사(鬪士)인 도킨스는 신에 대한 믿음을 유해한 망상으로 규정하고 종교의 폭력성과 비합리성 및 비윤리성을 지적하며 모든 형태의 인격신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공격하고 있다. 그는 종교를 문화적인 유전의 단위인 밈(Meme)의 복합체로서 진화한다고 설명한다.[16]

맥그래스는 바버의 모델 가운데 주로 갈등의 관점을 수용하여 종교와 과학의 관계를 "충돌적 모델"과 "비충돌적 모델"로 양분하여 설명한다. 먼저, 충돌적 모델(confrontational model)[17]은 종교와 과학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과 "전쟁"을 의미하는데, 학문적 담론보다는 대중적 담론을 지배해 온 유형이라고 설명한다. 서양에서는 19세기의 자연과학들이 가톨릭의 지배로부터 유럽인을 해방시키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과학은 "학문적 자유의 탐색에서 해방자"로 인식되었다. 다윈주의의 적자생존의 논리는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도 적용되었고 양자 중 패자는 인간지식의 진화과정 속에 결국 사라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만들어냈다. 나아가 성직자와 과학자 사이에 사회적 지식을 생산하는데 일종의 권력투쟁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한다. 19세기 초에는 성직자가 과학자가 되기도 했지만, 진화론은 사회에 지적으로 가장 유능한 자만이 생존할 것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했고, 의례 성직자는 과학의 적으로 간주되었다. 실제로 근본주의적 종

---

15) Alister McGrath and Joanna McGrath, *The Dawkins Delusion?* (2007), 전성민 역, 『도킨스의 망상』 (서울: 살림, 2008), pp. 153-156. 맥그래스는 도킨스를 '교조적 과학주의자' 내지 '종교적 무신론자'로 간주한다.

16) Richard Dawkins, *The God Delusion* (2006), 이한음 역, 『만들어진 신』 (서울: 김영사, 2007), pp. 292-307.

17) 맥그래스는 '충돌과 전쟁' 모델이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하였는데, 현대 한국사회의 미디어 제작과 유포에서도 종교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전문 종교학자를 찾아 자문을 구하기보다는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를 찾아 종교문제에 대한 분석과 대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교는 과학을 반대했으며, 진화론을 "신에 대항하는 사탄의 오랜 전쟁"으로 간주하기도 했다. 과학이 신의 권위를 추락시킨다는 우려 속에 종교는 과학을 향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였다.[18]

예를 들어, 미국 테네시주에서 1925년에 발생한 이른바 "원숭이재판"은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쳤던 교사 스콥스(John Scopes)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대로(Clarence Darrow)와 창조론을 수호하려던 브라이언(William Bryan) 사이의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이념논쟁의 역사를 남겼다.

> 대로: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문자 그래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브라이언: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물론 은유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중략]
> 대로: 노아의 홍수가 언제 일어났다고 성서에 씌어 있습니까?
> 브라이언: 한 번도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 대로: 홍수 설화가 다른 종교의 경전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 브라이언: 모릅니다.
> 대로: 기독교 외 다른 종교에 대하여 한 번도 연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 브라이언: 그렇습니다.
> 대로: 중국의 유교가 얼마나 오래된 종교인지 아십니까?
> 브라이언: 정확하게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대로: 조로아스터교가 얼마나 오래된 종교인지 아십니까?
> 브라이언: 모릅니다.
> 대로: 유교와 조로아스터교가 기독교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 브라이언: 저는 기독교신앙을 거부하기 위하여 애쓰는 어떤 사람의 의견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19]

위의 논쟁에서 브라이언의 종교였던 기독교 세계관과 대로의 진화론에 기초한 과학은 개념적으로 첨예한 대립을 보인다. 그 결과 유교와 조로아스터교와 같은 다양한 세계종교를 연구하는 종교학도 보수적인 종교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며 신앙을 "거부"하는 세속적인 학문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에 상식에 호소하는 듯이 보이지만, 종교인의 신앙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수단으로도 종교학이 오용되었다는 점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종교와 과학이

---

18) Alister E. McGrath, *Science and Religion* (Oxford: Blackwell, 1999), pp. 44-48.
19) 김상근, 『기독교의 역사』 (평단, 2004), pp. 257-259.

상호 화해할 수 없는 깊은 간극을 갖게 되므로 종교학자의 학문적 노력도 중립적으로 평가되기보다는 상호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다른 종교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는 비록 그가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신앙이 지닌 불합리성과 몰이해를 드러내는 반증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맥그래스는 충돌적 모델의 반대편에 서 있는 비충돌적 모델을 다시 수렴의 입장과 구별의 입장으로 세분한다. 첫 번째 충돌적 모델에 이어, 둘째, 과학과 종교가 "수렴"하는 입장을 조명한 것이다. "과학이 발견한 진리가 신의 진리"라면 기술의 진보와 과학적 지식의 확장도 결국 종교적 신념 안에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다는 태도이다. 17세기 영국의 이신론(Deism)과 19세기 자유주의 개신교(liberal Protestantism)에서 잘 발견되는 유형으로, 신념의 내용 가운데 일부 수정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과학과 종교가 충돌이나 거부의 관계를 형성하지는 않는다. 슐라이에르마허와 그의 뒤를 이은 리츨의 신학은 진화론이 신의 존재와 활동에 일치한다고 보았다. 화이트헤드와 하트숀의 영향을 받은 과정신학의 경우에서도, 신이 자연의 과정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예수회 신부 떼이야르 드 샤르뎅도 신이 진화의 과정을 통제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수렴의 입장에서는 정신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를 분리하기보다는 양자가 절묘하게 결합되어 하나의 우주를 형성한다. 맥그래스의 수렴 모델은 바버의 대화와 통합의 모델을 결합한 형태인데, 이 경우에 종교학의 위치와 역할은 '새로운 종교' 혹은 '새로운 과학'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양자를 중재할 필연적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서 종교학의 독립적 위치를 찾기가 쉽지 않다.

셋째, 과학과 종교를 뚜렷이 "구별"하여 양자를 독특한 세계관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유행하는 문화에 기독교를 적응시키려는 자유주의 개신교에 대한 반동으로 형성된 신정통주의의 입장에서 잘 드러나는데, 바르트(Karl Barth)의 경우 자연과학을 기독교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다. 과학과 신학은 전혀 다른 가정 위에 작용하기 때문에 과학은 신앙을 지지할 수도 그렇다고 부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실재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과학과 종교는 각각 "어떻게"(how)의 질문과 "왜"(why)의 질문에 관심을 주로 기울이며, 자연의 법칙과 기원에 대하여 설명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구별의 유형에서 종교학은 종교에 대한 고백적 접근과는 달리 이질적인 다양한 방법과 이론을 사용하여 종교에 대한 낯설게 읽기를 시도한다. 수렴의 모델과 비교해 볼 때, 종교와 과학과 구별되는 종교학 나름의 위치를 구축하기가 보다 쉽다.

맥그래스의 모델은 종교와 과학의 관계를 일반적 담론의 수준으로까지 규명해 나가기보다는 기독교를 (1) 자유주의 개신교, (2) 근대주의, (3) 신정통주의, (4)

복음주의로 세분하여, 기독교의 다양한 신학적 태도에 따라 과학과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자연과학과 종교의 부정적 관계를 (1) 전통적 종교의 보수와 (2) 전통적 종교관에 대한 과학적 세계관의 비판적 도전에서 찾았고, 양자의 긍정적 관계를 (3) 자연연구와 신연구의 상호관련성, (4) 자연의 신적 질서 탐색에서 찾았다.[20] 그는 예외의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로 '충돌적 모델'에는 반대하고 '비충돌적 모델' 가운데 수렴의 모델보다는 구별의 모델을 지지한다.

요컨대, 양자 모두 종교와 과학의 다양한 관계를 탐색해 왔지만, 바버는 과학에, 맥그래스는 기독교 신학에 강조점을 두면서 종교와 과학의 관계를 유형화하였다. 둘 다 서양에서 활동하며 기독교에 젖어있는 영미문화를 중심으로 종교와 과학 간의 담론을 형성해 왔다는 문화적으로 태생적인 약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전자는 대화와 통합을, 후자는 갈등과 독특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지지하며 상이한 결론에 도달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모델들과 유형들에 대한 담론에서 세계종교를 다루는 종교학이 크게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이다. 종교와 과학의 관계가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서, 종교학은 때로는 부정적이거나 반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고 갈등과 충돌의 유형보다는 대화와 통합 그리고 독특성을 강조하는 유형에서 그 학문적 역할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Ⅲ. 종교와 과학에 대한 인식론적 반성: 월터스터프와 호이스틴의 모델

우리는 과학을 종교학의 연구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 이미 1세기 전에 영국의 철학자 콘퍼드(F. M. Cornford)는 종교와 철학의 연속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희랍 철학의 흐름을 크게 '과학적 전통'과 '신비주의적 전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호메로스와 올림피아 종교에서 기원한 것이고, 후자는 오르페우스와 디오니소스 종교에서 발전한 것이다. 그는 양자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이오니아의 과학은 신학을 대체하였고, 종교로부터 신성한 영감을 공급받음이 없이 그

20) McGrath, *Science and Religion*, pp. 31-44, 51-54.

> 자신의 길을 갔다. 과학은 실용주의적 성향을 지니면서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쥐려 한 점에서 주술과 유사하다. 반면 종교는 자신의 욕망과 이의 성취 사이에, 통제할 수 없으며 알 수 없는 요소, 즉 인격적 신의 의지를 개입시켰다. 과학의, 무의식적일지는 모르나 영원한 목표는 알 수 없는 것을 통한 이런 우회로를 피하고, 이 자의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종교적 표상 대신에 필연에 의해 철저히 지배되는 폐쇄적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신들은 세계들 사이의 공간으로 유배시키거나, 연구가 '제 1 원인' 이라는 명예로운 지위를 주어 퇴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학이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제 1 원인과 마지막 결과 사이에 그 신들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과학은 신학에 등을 돌려, 될 수 있으면 빠른 속도로 달아난다. 그것은 몇 걸음의 빠른 활보를 하여 실재계의 구조에 관한 매우 단순하고 명료한 모델에 이르렀는 바, 이 모델에서 초자연적인 것은 거의 사라졌다.[21]

그에 설명에 따르면, 철학의 과학적 탐구의 전통은 자연과 삶에 대하여 초자연적인 차원과 설명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인간의 지적 탐색인 셈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다시 인식론의 체계로서 종교와 과학의 유사성을 부각시키는 지적 흐름이 영미철학에 등장하였다.

미국의 종교철학자 월터스터프(Nicholas Wolterstorff)를 비롯한 반기초주의자들은 "지배적인 신념들"(control beliefs)의 개념을 강조하며 종교의 범주를 가지고 과학에 접근하였다. 예를 들어, 1616년 로마의 종교재판소가 프톨레미의 천동설에 대항하여 천체가 움직인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옹호한 갈릴레오를 정죄한 것은 그의 주장이 성경을 권위 있는 진리로 인정하는 당시 기독교인들의 신앙(faith)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 그들의 지배적 신념들에 반하여서 그 이론을 배척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방적 심의가 있은 후 1세기가 채 안 되어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은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한편 데카르트는 물질은 접촉된 물질의 운동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기계론적 세계관을 주장하였는데, 뉴톤이 만유인력에 대한 이론을 발표하자 즉시 이에 반박하며 "반계몽적이며 중세적 사고의 재도입"이라고 혹독히 비판하였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들은 결국 사람들의 철학적 신념(philosophical beliefs)이 과학적 이론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20세기 초에 논리실증주의자는 모든 지식의 견고한 토대와 불변하는 진리를 관찰과 감각에서 찾았는데, 자연과학을 그들의 신조로 삼았다.[22] 월터스터프

---

21) F. M. Cornford, *From Religion to Philosophy* (1912), 남경희 역, 『종교에서 철학으로』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5), p. 191.

22) Nicholas Wolterstorff, *Reason within the Bounds of Religion*, 2nd ed. 문석호 역, 『종교의 한계 내에서의 이성』 (성광문화사, 1991), pp. 17-23, 27.

는 한 사람이 학문적 행위를 할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신념들로서의 종교적 신념은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한 사람의 기독교적 신앙은 그가 가진 과학과의 계속적인 갈등 속에서 모험을 해나가며, 또한 그가 가진 과학적 신념은 그가 가진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과 계속적인 갈등 속에 모험을 한다. 극한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또한 어째서 수정이 생기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탐구해야 한다.[23]

월터스터프는 종교적 신앙이 과학적 신념과 아무런 갈등 없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느 정도 지속적인 갈등의 과정을 거쳐 가며 상호 변화를 통하여 일종의 조화를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지적은 기초주의가 지향하는 지나친 객관성의 확보에 대한 반발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서구의 과학자들은 모든 편견, 모든 선입관, 모든 추측을 제거하여 궁극적으로 확고한 이론을 세우려고 아래의 도식과 같은 기초주의(foundationalism)의 모델을 추구해 왔다. ① 확실성의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추론과 과학적 검증과 같은 ② 정당화의 과정을 거쳐 결과적으로 ③ 순수과학의 이론들을 구축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 가정을 단계별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③ 순수과학(scientia)의 이론들
↑
② 정당화
↑
① 확실성의 기초

기초주의자는 순수과학의 영역을 확실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세우기 위하여 추론에 의한 정당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론은 기초적 명제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것이며, 반면에 사람의 어떤 추론도 없이 확신을 가지고 참이라고 알고 있는 명제를 우리는 '기초적'(basic) 명제라고 구분할 수 있다.

월터스터프는 전통적인 기초주의의 관점에서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크게 (1) 상보주의, (2) 전조건주의, (3) 통합주의로 구분한다. 첫째, 상보주의는 아퀴나스의 태도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데, 신앙과 이성이 상호 보완해 준다는 입장이다. 종교인과 비종교인은 서로 믿음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식의 내용도 다르다. 따라서 과학적인 탐색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일군의 명제들이 있는가하면 신

23) Wolterstorff, *Reason within the Bounds of Religion*, p. 32.

앙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명제들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전조건주의는 어거스틴과 칼뱅의 입장에서 잘 드러나는데,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종교인들에게는 불합리하게 들리겠지만, 과학의 이론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앙이 필수조건이 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신앙의 결여는 이해를 방해하고 오해와 무지를 낳게 된다. 마지막 셋째, 신앙의 교리적 내용을 기초적인 확실성에 포함시키는 태도이다. 예를 들어, 축자영감설에 기초한 성서의 무오류성을 주장하며 교리를 성서의 문자적 내용에 일치시켜 구성하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기초주의의 인식론에 반대하며 반기초주의를 주창하는 월터스터프는 확실성의 기초와 순수과학의 이론들 사이의 연역과 귀납에 의한 정당화의 과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초에 속할 만한 명확한 명제를 발견하기도 무척이나 힘들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그는 이론의 정립은 오히려 확실성의 기초가 없는 상태여야 한다고 본다. 월터스터프에 따르면, 인간은 과학적 행위를 할 때뿐만 아니라 비과학적 행위를 할 때에도 이론들을 고안해 낸다. 이론의 정립과정에서 자료에서 얻게 되는 신념, 데이터의 배경을 이루는 신념, 그리고 지배하는 신념이 각각 작용하며, 특히 지배적인 신념은 이론을 만들어내고 평가하는데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신앙의 내용(content)은 사람과 시대에 따라 다르므로 충돌은 필연적인 것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는 종교적 신앙이 지배적 신념으로 인정되어 이론정립의 과정에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자기의 신앙이나 행위의 체계 안에서 일관성 있고, 전체적이며, 완전무결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24]

그러나 비기초주의(non-foundationalism) 혹은 반기초주의(anti-foundationalism)도 포스트모던이즘의 인식론을 제공함으로써 심각한 상대주의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어떤 신념도 특정한 공동체 안에서 지배적 신념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면, 우리는 과학과 종교의 정당성과 독특성 나아가 보편성을 과연 얼마나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일까?

호이스틴은 기초주의가 부실한 객관주의를 조장했다면, 반대로 그 대안으로 등장한 비기초주의가 지나친 상대주의를 유포했다고 비판한다. 양자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 3의 선택으로 후기기초주의(post-foundationalism)의 수용을 제안한다.[25] 그렇다면 그가 제안한 후기기초주의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인간 문화에서 종교와 과학, 두 전통의 독특성과 깊이를 충분히 인정한다. 둘째, 해석된 경험

24) Wolterstorff, *Reason within the Bounds of Religion*, p. 100.

25) van Huyssteen, *Duet or Duel?*, pp. 23-24.

이 인식론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긍정하고, 종교와 과학의 전통이 신과 세계에 대한 반성을 제공하는 나름대로의 가치를 형성하는 방식임을 긍정한다. 셋째, 동시에 후기기초주의는 지역 공동체, 단체, 문화의 범위를 넘어서 학제 간 대화와 협력을 지향한다. 넷째, 인간 합리성의 생물학적 원천에서 이 학제 간 연구의 인식론적인 정당성을 찾는다. 우리가 종교와 과학을 이론의 체계로서 기초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상호 충돌과 갈등이 불가피하며, 반면에 월터스터프가 제안한 지배적 신념을 강조하는 반기초주의로 접근한다면, 종교와 과학의 독특성이 사라져 대화, 수렴, 통합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다문화와 다종교의 시대에서 종교와 과학을 문화와 언어의 차이에 기초한 세계관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떨까? 먼저 만약 종교를 구성하는 교리를 그 명제가 지닌 인지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특정한 교리가 객관적인 실재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진리주장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입장에 선다면, 종교와 과학은 서로 충돌하여 '바른 교리'와 '이단' 및 '사이비' 논쟁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러한 명제적 입장은 지나치게 정태적이기 때문에 변화에 둔감하다는 약점이 있다. 하레 크리슈나, 바하이 신앙, 라엘리안 무브먼트 등의 새로운 종교들에 대한 이해에도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게놈연구를 비롯한 유전학의 진보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될 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 적용하기가 힘들 것이다. 둘째로, 교리의 근거를 명제에서 찾지 않고 인간의 경험에서 찾을 수도 있다. 불교에서는 탈속의 불교 대신에 참여의 불교가 등장하고 있고, 기독교에서도 정통신학 대신에 여성신학, 흑인신학, 해방신학, 문화신학, 과학신학, 종교신학 등이 등장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내면적 감정과 실존적 결단이 교리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관점에서는 반기초주의의 입장과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경험론에 기초한 교리관은 "상대주의와 획일주의의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다"는 점이다. "교리의 구속력과 연속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시대에 맞춰 상대적으로 해석할 위험이 그 하나이고, 나름대로 특색있는 교리를 모두 똑같은 경험의 소산"이라고 일반화할 수 있다는 위험이다.[26]

과학과 종교의 이론을 인식-명제적 관점과 경험-표현적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호트의 지적처럼 과학과 종교를 일종의 "독법"으로 보는, 문화-언어적 관점으로 전환하는 시도도 제시되고 있다.[27] 종교는 삶과 사상을 형성하는 문화-언어

---

26) 배국원, 『현대 종교철학의 이해: 종교에 대한 후기근대적 접근』 (동연, 2000), pp. 142-147.

27) George A. Lindbeck, *The Nature of Doctrine: Religion and Theology in a*

적 틀(framework) 혹은 매개물(medium)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틀로서의 종교는 명제적 신념체계도 경험의 표현도 아닌 실재들에 대한 기술, 신념의 형성, 경험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주어진 관용어와 같다. 문화와 언어처럼, 종교는 개인의 주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주관을 형성하게 만드는 공동체적 인간의 현상이며 주형인 것이다. 언어의 문법이 있듯이 종교적 세계관에도 나름대로의 신화, 교리, 윤리, 의례, 제도 등의 문법이 있어서, 그 요소들이 결합되어 형성된 종교는 명제와 경험을 해석하는 일종의 모체(matrix)를 마련한다. 따라서 종교와 과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시각에서 그들의 문법에 따라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의 경험과 신념은 이 문화-언어적 형태들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변형되고, 구성되어진다. 우리가 종교와 과학의 문법들과 상징들을 습득하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사고들, 인지하는 실재들, 느끼는 감정들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이점에서 종교학은 발생과 변화의 역사 속에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

신학과 사회과학으로부터 독자적인 관점과 방법을 형성해 온 종교학은 앞으로 신학과 사회과학과의 창조적인 결합을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종교와 과학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종교학의 의미와 역할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IV. 결론: 종교와 과학 그리고 종교학 간의 삼자대화

최근 출간된 『종교전쟁』은 종교에 관하여 신학자, 종교학자, 과학철학자가 이메일로 교환한 편지들을 모으고 삼자의 거침없는 대화로 마무리한 종교와 과학 그리고 종교학의 만남과 소통을 시도한 보기 드문 매우 독특한 저서이다. 과학주의를 대표하는 장대익교수는 "종교의 유통 기한이 이미 끝났다."고 주장하지만, 기독교 조직신학자 신재식교수는 "과학과 신학을 새롭게 통합한 진화론적인 유신론을 모색하는 동시에 과학의 반성을 촉구한다." 반면에 불가지론의 성향을 보이는 종교학자 김윤성교수는 "실체로서 종교는 없으며 종교라 불리는 문화 현상만 있다"고 주장한다.[28] 이들의 대화가 유독 참신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한국사회에서 이와 같은 삼자대화를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29]

Postliberal Age,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4, pp. 32-41.

28) 신재식, 김윤성, 장대익, 『종교전쟁』(사이언스북스, 2009), pp. 22-23.

29) 안 신, 「서평: 종교와 과학의 충돌과 대화」, 비폭력연구 3호, 2010년, pp.177-180.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종교와 과학의 담론은 주로 기독교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물론 불교와 이슬람에도 과학담론이 있기는 하지만 그 규모나 내용 면에서 기독교만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30] 요컨대, 맥그래스는 종교의 다양성을 충분히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기독교의 다양성을 강조함으로써 복음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과학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고, 바버는 과학의 구체적 사례들과 종교와의 연관성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반면에 월터스터프는 개혁주의 종교철학자로서 과학과 종교, 이성과 신앙에 관한 담론에서 지배적 신념의 개념을 사용하여 과학과 종교를 일종의 구축된 이론들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호이스틴은 독특성과 차이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대화와 협력을 주장하며 후기기초주의를 제안하였다. 우리가 살펴 본 것처럼, 종교 간 대화의 모델들만큼이나 종교와 과학 간의 관계와 대화에 관한 모델들도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이와 같이 복잡하게 전개되어 온 종교와 과학 담론 가운데, 종교학자는 처음에는 관찰자로서, 혹은 참여자로서, 때로는 비판자로서 그 역할을 담당해왔다. 반세기도 채 안 되는 한국 종교학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종교와 과학 자체에 대한 메타이론과 담론이 최근 급속도로 증가되고 확산되어가는 상황은 앞으로 종교학자가 감당해야 할 공적인 영역에서의 학문적 역할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앞으로 종교학자의 학문적 성향과 방법에 따라서 자신의 역할과 기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정한 역할로 그 가능성을 제한하고 싶지는 않지만, 21세기 과학과 종교의 담론에서 종교학자는 종교학을 '새로운 종교' 혹은 '새로운 과학'이라고 주장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조장하기보다는 보다 중립적 자세를 가진 해석자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종교와 과학, 종교학의 역할, 이안 바버, 앨리스터 맥그래스, 니콜라스 월터스터프, 벤젤 반 호이스틴, 유형들, 갈등, 대화

원고접수일: 2010년 10월 24일
심사완료일: 2010년 11월 30일
게재확정일: 2010년 12월 6일

30) 정진홍 외, 『종교와 과학』(아카넷, 2000)을 참조하라. 특히, 서울대 물리학과 소광섭교수와 종교학과 윤원철교수는 불교의 세계관(대승기신론과 이제설)과 관련된 과학담론을 소개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상근, 『기독교의 역사』, 평단, 2004.

배국원, 『현대 종교철학의 이해: 종교에 대한 후기근대적 접근』, 동연, 2000.

신재식, 김윤성, 장대익, 『종교전쟁』, 사이언스북스, 2009.

안 신, 「서평: 종교와 과학의 충돌과 대화」, 『비폭력연구』 3호, 2010년, pp. 177-180.

정진홍 외, 『종교와 과학』, 아카넷, 2000.

조계종 포교원, 『포교이해론』, 조계종출판사, 2007.

Barbour, Ian. *When Science Meets Religion*, London: SPCK, 2000.

Cornford, F. M. *From Religion to Philosophy* (1912), 남경희 역, 『종교에서 철학으로』,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5.

Dawkins, Richard. *The God Delusion* (2006), 이한음 역, 『만들어진 신』, 김영사, 2007.

Fergusson, David. *The Cosmos and the Creator: An Introduction to the Theology of Creation*. London: SPCK, 1998.

Frerichs, Ernest S. and Neusner, Jacob. *Goodenough on the History of Religions and on Judaism*, Atlanta: Scholars Press, 1986.

Haught, John. *Deeper than Darwin*, 김윤성 역, 『다윈 안의 신』, 지식의 숲, 2005.

Ibrahim, I. A. *A Brief Illustrated Guide to Understanding Islam*, 곽은미 역, 『이슬람의 이해를 돕는 간단한 삽화 안내서』, 아담출판사, 2007.

Lindbeck, George A. *The Nature of Doctrine: Religion and Theology in a Postliberal Age*,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4.

McGrath, Alister E. *Science and Religion*, Oxford: Blackwell, 1999.

_____. *The Science of God: An Introduction to Scientific Theology*, London: T & T Clark, 2004.

_____. and McGrath, Joanna. *The Dawkins Delusion?* (2007), 전성민 역, 『도킨스의 망상』, 살림, 2008.

Muller, Max.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Religion*. London: Longmans, Green, and Co., 1882.

Peterson, Michael. et al., *Reason and Religious Belief*, 3rd ed. (2003), 하종호 역, 『종교의 철학적 의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van Huyssteen, J. Wentzel. *Duet or Duel?: Theology and Science in a Postmodern World*. London: SCM, 1998.

Wolterstorff, Nicholas. *Reason within the Bounds of Religion*, 2nd ed. 문석호 역, 종교의 한계 내에서의 이성』, 성광문화사, 1979.

Woodhead, Linda. ed. *Religions in the Modern World*. London: Routledge, 2002.

국제 과학과 종교 학회 홈 페이지 http://www.issr.org.uk/ (접근일: 2010년 5월 6일) 기포드강좌 홈 페이지 http://www.giffordlectures.org/Author.asp?AuthorID=207 (접근일: 2010년 5월 12일) 미국공영방송 홈페이지 http://www.pbs.org/newshour/forum/june99/barbour_bio.html(접근일: 2010년 5월 10일) 칼레톤대 홈 페이지 http://www.carleton.edu/campus/newsbureau/pr/barbour.html (접근일: 2010년 5월 16일)

<Abstract>

Religion, Science and Religious Studies:

Diversity of their Relationship and the Role of Religious Studies

Ahn, Shin(Pai Chai University)

The recent debate between religion and science is one of hot issues in religious studies. The role of religious studies in this discourse becomes more important, so we need to classify various existing models to relate religion and science in order to make the role of religious clear.

First, Ian Barbour, an American scholar, suggests four models of the science-religion relationship: conflict, independence, dialogue, and integration. He prefers last two models to first two models. Second, Alister McGrath, an evangelical English scholar, reorganizes Barbour's model to make two models: confrontational and non-confrontational models. He focuses on the science-religion relationship in the context of liberalism, modernism, neoorthodoxy, and evangelicalism. Both Barbour and McGrath are Christians, but their emphases are different. McGrath is more concerned about the diversity of Christianity.

Third, Nicholas Wolterstorff, an American philosopher, criticizes the epistemological model of foundationalism and points out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reason. He argues that the belief content of Christian commitment should play a role of control belief in weighing theories in the discourse of religion and science. Four, van Huyssteen proposes post-foundationalism to overcome both the extreme rationalism of foundationalism and the extreem relativism of non-foundationalism.

These various classification are mainly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religion and science are a kind of grammar and matrix rather than propositional system and inner experiences. In conclusion, the scholar of

religion should tackle the issues of religion and science as observer, participant, or critics. But they should not become a new religion nor a new science in this discourse.

Key words: Religion and Science, Typology, Role of Religious Studies, Ian Barbour, Alister McGrath, Nicholas Wolterstorff, J. Wentzel van Huyssteen, Conflict, Dialogue